

2019년 6월 시청자위원회

2019년 6월 25일 (화) 오전 11시

대전MBC 4층 대회의실

참석 :

시청자위원회 : 김선재 위원장, 양홍모 위원, 권부남 위원, 양선희 위원, 김병구 위원, 서한나 위원

회사 : 신원식 대표이사, 이재근 경영국장, 신영환 보도국장, 최영규 제작부장, 서주석 사업국장, 정수진 기술센터장

간사 :

오늘은 정기회의에 앞서 시청자위원회 부위원장 선출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

그럼 대전MBC 시청자 위원 가운데 부위원장을 추천 부탁드립니다.

권부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양선희 위원)

이의 없으시면, 박수로 결정하겠습니다.

(전원박수 권부남 위원, 부위원장으로 선출)

다음 달(7월)은 휴가 일정 등으로 서면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신원식 사장 :

어느새 일년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저희 대전문화방송도 새로운 시도가 많았고,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동안 준비한 다큐멘터리를 하반기에 선보일 예정이며, 우리지역 대학생들의 방송참여, 직접 제작하는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시청자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김선재 위원장 :

지난달, 위원장을 맡아 대전MBC에 대한 애정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대전 MBC의 변화의 모습이 보여 좋았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 계획에 기대가 크며, 시청자 위원들도 같이 노력해서 방송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럼 정기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양홍모 위원 :

요즘은 다시보기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는데, <이제는 시민이 주인이다> 다시보기에 들어가면 방송일과 제목만 나와 있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었으면 합니다.

<시시각각> 관련해서는 정치 관련 코너의 출연진 반복이 계속되는데, 정가 뉴스라 하더라도, 보좌관이나 관련 교수를 출연시키는 등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치 지형상 거대정당의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이해하지만, 거대정당 외에도 소수 정당도 출연이 보다 많았으면 싶습니다. 이러한 점도 다양성의 다른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 제작 이야기는 무척 관심이 갑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의 호응을 얻으려면, 전문적인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MB의 경우 먼저 도입했는데, 취지는 좋았으나, 호응이 없어 무척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시청자의 호응을 얻을 다양한 방법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권부남 부위원장 :

<시시각각>의 자녀 체벌 어떻게 볼 것인가 ? 부분을 아주 재미있게 시청했습니다.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대립하는 연사가 서로 의견을 주장하는 모습이 흥미로웠습니다. 시시각각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소상히 소개해서 좋았는데, 정가 이슈 코너 관련해서는 정치인의 막말만 소개해서 조금 편향된 시각이 있지 않았나 싶은 우려가 들었습니다. 화제가 되는 정가 뉴스라도, 균형을 잡는 의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제는 시민이 주인이다>는 소소한 이야기를 잘 찾아내서 항상 즐겁게 시

청하고 있습니다.

<아침이 좋다> 6/4 국립현충원 방송분은 시기에 맞추어 무겁지 않게 제작해서, 재미있게 시청했습니다. 들레길 소개가 특색 있고 인상적이었습니다.

<뉴스데스크> 6/14의 현대제철 문제는 사건을 너무 대립적인 각도로 다룬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역의 현안문제에서 시민단체보다 일반 시민의 의견이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양선희 위원 :

6/3 뉴스중 <노인 교통사고 사망률 50%넘었다.>는 바람직한 보도라는 생각입니다. 사고 사례를 보여주며 심각성을 보여줘서 좋았는데, 자세하고 정확한 데이터와 원인분석과 충남도의 대안까지. 좋은 보도였고, 단편적인 보도가 아닌 이러한 대안까지 제시하는 바람직한 보도가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6/11 <이희호 여사 별세> 관련 뉴스도 지역뉴스의 좋은 본보기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에서의 뉴스를 지역에서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대한 좋은 본보기였습니다. <U20관련 뉴스> 역시, 글로벌한 소재를 지역의 뉴스로, 지역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기사여서, 보기 좋았습니다.

시시각각 : 정치 코너

두 의원이 여러 차례 등장, 같은 뉴스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서로 경쟁하는 것이 생동감 있고 좋았습니다. 여러 차례 출연한 출연자의 경우, 방송에 적합한 출연자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아, 새로운 출연자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기존의 출연자의 방송 능력을 향상시키는 점도 고려해야할 요소입니다.

다큐 에세이 그 사람

지역MBC 공동제작하는 이 프로그램에서 수주에 걸쳐, 재키정, 해녀의 노래 등 가수와 노래가 중복되어 소재로 등장하고 있어, 다양성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획단계에서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상에서 동영상위에 제목이 드러나도록 일관성이 있게 정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이제는 시민이 주인이다

어은동 축제를 다룬 방송분에서 화면도 생동감 있고, 인터뷰도 알차습니다.

내동의 부엌은 내용은 좋았지만, 운영주체의 인터뷰만 있고, 실제 주역주민의 인터뷰가 빠져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김선재 위원장

6/1 건강플러스 : 허리통증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유용한 정보가 많아 좋았는데, 시술이나, 치료에 집중하고 평소 관리에 필요한 부분이 적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대부분의 시청자의 경우 생활에서 실천하는 생활습관, 자세, 예방법 등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TV주치의 직전 건강밥상은 소재와 내용은 좋았으나, 전체적인 연관성이 조금 부족한 듯 느껴집니다. 요통에 좋은 요리나 두통에 좋은 요리 등 연관을 가지면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될듯합니다.

6/14 기부에 대한 뉴스는 기부의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는 좋은 뉴스입니다. 이런 훈훈한 뉴스가 더 많았으면 합니다.

대학에서 경비원의 훈훈한 기부 사례 소개하니, 발굴기사로 시청자에게 소개해도 좋을 듯 합니다.

김병구 위원 :

처음 참석으로 분위기 좋고, 방송을 위해 공헌한다는 의무감도 듭니다. 앞으로 잘 준비하겠습니다.

방송에 있어서, TV보다 핸드폰, 컴퓨터를 이용해서 시청하는 세대가 늘고 있어, IT기술이나 신기술에 보다 정밀하고 신속한 접근이 필요한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방송 소재는 지역의 이슈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떨어진 중앙의 이야기보다 우리의 이야기를 보다 많이 다루었으면 합니다.

서한나 위원 :

시시각각 :

지역정치인의 발끝에 보다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서 반영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녀체벌금지 관련해서 찬성과 반대의 대립은 좋았지만, 찬성과 반대의 패널 중에 시대의 흐름과 너무 동떨어진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가 있어, 보다 신중한 패널 섭외가 아쉬웠습니다.

진행자인 노정렬씨의 경우, 중간중간 재치있는 발언은 인상적이지만, 간혹 출연자의 말을 끊는 부분은 지양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독전

마술하는 콜라비를 흥미롭게 지켜보았습니다. 화면, 음향 등 전체적으로 생기 있는 느낌으로 구성되어 알찬 프로그램으로 생각되었고, 전영미, 박찬규의 콜라보레이션도 좋았습니다.

양홍모 위원:

1회용품 관련해서 방송중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송에서 1회용품의 모습을 최대한 줄이고, 재사용 물품을 화면에 자주 노출시키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신영환 국장 :

시시각각의 뒷부분 정가이슈 정치인 출연 아쉽지만, 어려움도 있다. 출연 요청시 진통이 있다. 보다 다양한 접근으로 다양한 출연자를 고민하겠다.

홈페이지의 상세한 정보 제공에도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

일반 시민 인터뷰도 보다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부문화 확산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는 아이템이고, 보다 많은 발굴기사를 찾아보겠다.

최영규 제작부장 :

다시보기 키워드나 제목은 보완하겠다.

시청자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이 제작중이며 대전충남의 9개 대학이 참여 중입니다. 시청자 미디어센터의 참여도 계획하고 있다. 향후 외연을 넓힐 계획. 지역의 대학생이 참여하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회사에서도 노력하고 있다.

이제는 시민이 주인이다. 대전지역 외에도 세종과 충남 지역으로 보다 확대할 계획이며, 15편의 총 예정부분이 끝나서, 다시 기획에 임하고 있다.

독전의 경우 시즌 1이 종료되고, 시즌 2의 부분은 내부에서 고민하겠다.

후반기에는 다양한 다큐멘터리를 준비하고 있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김선재 위원장 :

새로운 프로그램 기대가 많다.

다음 달의 서면 회의는 잘 부탁드립니다.